

방담사력 이 린 어 의 일제선조

뒷
장

이 린 어

◇ 名作
童話

『 피 시 오 라 』

方定煥

◇ 童話

김도령・송도령……彼岸塔

◇ 童話

물고가내력……秋江

◇ 童話

오성한음애기……朴達成

◇ 나무넙배……

新童謠

◇ 山에 가는法……

一記者

◇ 나그네잡기……

小波

◇ 어엽분사진……

寫眞版



매달
賞與 **懸賞問題**

數種

◇ 저 녀 때……

嚴參蓼

◇ 가련한少女……

金千得

◇ 봄과겨을……

李昌運

◇ 우습새리……

×××

◇ 奇話

이상한구리돈……CBS

◇ 知識

다니는나무……安先生

◇ 知識

금붕어……스승生

◇ 特別
記事

獅子와가튼勇少年

一記者

電話振京八〇一(光)番
番二四六

行發社關開城京

外지錢拾단一冊





이
곳
에
가
서
단
체
사
진
을
찍
으
시
오
.



다 고 할 수 있 스 나

북촌에 살았던 양반들 — ★ 반 — 그 중에서도 — ☆ 론

★ 북촌의 양반들은 북촌의 양반들이었다.

네로보고지금으로본

서울 중심세력의 유동

小 春

是非善惡은別問題로하고, 넷적의서울체럼社會組
織의整然한것은업섯다. 王室을中心으로하고,

우으로領議政判書로부터아래로지계군쌍군까지제
히所屬이分明하야, 一絲不亂의整備狀態에잇섯다。
平時에는제各하타든바의任務에편안하고, 一朝有事
의秋에는한令의밋해서左右를決하게되엇섯다。그때
서서울城안에는그居住하는것조차어느便에어느級
의族屬이살고어느쪽에어느兩班이산다하야아모데
에사는사람이라하면 그사람의姓名性質如何를물을
것업서그사람의品位族屬의如何를直判하게되얏다。
이것이勿論京城開都直後의일은아니엇슬지나, 宣祖
朝年間東人西人이갈년以後쯤부터는一層그線이分明
하게되엇다。

이제옛서울의각족속의분포상황을기술하면
북산밋홀북촌, 남산밋홀남촌, 낙산근처를동촌,

서소문내외를서촌, 장교, 수표교어름을중촌, 광통교
이상을우대, 효교이하를아래대, 강변을오강, 성밖

사면심리이내를자내(字內라함은, 서울城壁에天地立
黃의順으로어느點으로부터어느點까지의間은天字區
域或은地字區域이라하야, 그文字와文字의間을各軍
營에서分擔守備한故이다)라하야, 東、西、南、北
의네村(通稱曰四山밋)에는양반이살되, 북촌에는문반
남촌에무반이살엇스며, 또가튼문반의양반이로되,

서촌에는서인(朝鮮의全體를亡해버린所謂四
色別의元始인西人東人의稱號가생긴原因은西人의張
本人沈義謙은西村貞洞에살고, 東人의張本人인金孝
元은東村蓮洞에살은故로가토西人가튼東人이라한것
이다)이살엇스며, 그後西人이다시老論少論으로난
위고東人이다시南人、北人、또大北、小北으로난됨에
밋쳐는, 서촌은소론, 북촌은노론, 남촌은남인이살엇



版重又版重

評好大의前空

我出版界의레외—트를突破하고 第一 잘 팔리는理由!!

이책은 만冊이實로 놀랍게까지 팔리는데는 것은 朝鮮서 처음 보게趣味이고 有益하고 감이 몹시 싸고 글과冊이 몹시
어렵부고 넘기 쉽고 그러면서도 異常하게 老人이나 幼年이나 紳士나 婦人이나 다 조하하게 된 外 담이 다

이冊에 실려 있는 열가지의 小話! 불상하고 애담, 눈물, 의의, 약이 있는 모든 世界諸文豪의 靈筆로 記錄한
人生 누구나 맛본 悲哀의 日記라 天下人氣가 이冊에 集注됨은 當然한 일이기니와 다시 各書店의 評을 들으면

물론 물너가도다 세는 지나가도다. 사람은 울면서 白髮을 이도다. 아아 人生 누구가 青春을 오대 누릴 자 이 노
을고 울고 또 울어도 다시 오지 못할 그림은 青春을 永遠히 가슴에 품을 수 있기는 오죽 이冊이 잇슬 뿐이다
小波方定煥氏譯 ◎ 世界名 作童話 사랑의 선물 忽六版 定價五拾錢 郵稅拾參錢
虛偽와 矛盾에 더럽힌 現實의 世界! 煩惱과 悲哀에 가슴압하는 苦를 동무의 그윽한 설음을 하소연할 곳이 어디이
노 비오는 날 바람부는 저녁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서 눈물고일세 아아 불상한 동무여 그대는 이冊을 읽으라

地番八十八洞雲慶府城京
行發部版出社開開
番六〇一八城京座口替振



중
곡
어
린
아
히
력
사
탐
방



大正十二年六月二十五日第三種郵便物認可
（發行）



京城號

표지

第五年六月號